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실적 부진

집 주인의 사업참여 유인요소 없어... LH 생색내기 줄속행정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이 사전에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줄속적으로 추진되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진안무주장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용자(2억 한도 금리 1.5%)와 LH의 임대관리 지원을 받는 구조이다.

사업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이 없는 공지(空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이다. 임대조건은 대학생과 독거 노인에게는 시세 80% 월세로 저소득층에게는 시세 50% 월세로 공급하고 임대기간은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까지이다.

LH가 지난해 10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80명 모집에 총 358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LH가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80명 중 현재 실제로 설계 및 공사에 착공한 사업자는 10명에 불과하다. 특히,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80명 중 70명이 포기할 하자 사업자 숫자를 채우기 위해 공모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해서도 사업 참여의사를 타진했으나 확정수의 불만족 등의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LH는 올해 5~8월에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2차 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2차 공모 결과 320명 모집에 832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기본요건 미달자를 제외하고 422건에 대해 심사를 했으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것은 78건에 불과했다. 1, 2차 공모결과 당초 국토부가 목표로 한 400명 중 실제로 선정된 사업자는 88명으로 22%에 불과한 것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의 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집 주인에게 사업참여에 대한 유인요소가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1, 2차 공모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입지여건이 양호한 집주인의 경우에도 용자금 부담, 공사비 부족 및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했다.

저금리 시대에 굳이 정부 자금을 받지 않아도 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

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소득 노출을 감내하면서까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월세를 놓을지는 의문이란 분석이다.

LH 위탁관리로 세원이 노출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집주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

안호영 의원은 "이는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하거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타당성검토 없이 줄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에 앞서 겨우 35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 이 중 80%인 30명이 사업 참여 의사를 피력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폭등으로 인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 사전에 수요조사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발표하고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정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취소하거나 집주인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주영섭 중기청장, 도내 시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수출기업과 간담회도

주영섭 중기청장은 지난 7일 전북지역을 방문 전통시장 및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들과 수출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을 통해 참예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인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실시했다.

주 청장은 7일 오전에는 지난 2012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 전북기계공고를 방문, 기계분야의 마이스터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가졌다. 이후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 전북지역 대표시장인 남부시장과 청년몰을 찾아 전통시장 및 청년몰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날 "전통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에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넘치는 지역관광과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주 청장은 최근 천체원 전북지역 수출 재도약을 위해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다산기공에서 이주실업 등 지역 수출기업 9개사와 수출기업 간담회도 개최했다.

다산기공은 1982년에 설립해 총기 부품, 정밀 주조부품 등을 주력 생산하

는 업체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출액의 80%가 수출로 이뤄지고 있다.

주 청장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개선하고, 향후 정책입안이 필요한 과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출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해 지역의 산업구조와 수출기업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수출촉진 정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이스타항공, 항공권 특가 이벤트

오늘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수험생 대상

이스타항공이 대입시즌을 맞아 수험생 대상으로 오는 10월 10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스타항공은 EastAR, 행운의 별을 쏘다 이벤트를 통해 국내선(제주-김포, 제주, 군산-부산) 항공권을 특가 운임으로 제공한다.

해당 이벤트를 통해, 각 대선별 편도 총액운임 기준으로 국내선(김포-제주, 군산-부산) 제주 항공권이 주중 2만6,000원, 주말 3만1,000원에 제공되며 탑승기간은 이벤트 기간과 동일하다.

제주행은 금요일을 제외한 16시 이후 운항편이 이용 가능하며, 제주발은 일요일을 제외한 12시 이전 운항편 이용이 가능하다. 단, 군산-제주, 부산-제주 노선은 제주 출발편(ZE302,

ZE304)에 한하여 제공된다.

대상은 2017 대입 수험생으로 동반 2인까지 한인 적용되며, 이스타항공 예약센터(154-0080)를 통해서만 예매가 가능하다.

이번 수험생 특가 예매 고객들은 출발일 수속 시, 수험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입지원서, 원서접수증, 수험표 등)를 지참해야 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면접, 논술 등 대입시험을 위해 제주에서 타지역으로, 타지역에서 제주로 오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수능 시험이 끝난 후 까지 이벤트가 진행되는 만큼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쉐보레, 수해피해차량 수리비 할인

쉐보레(Chevrolet)가 태풍 차바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쉐보레는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 재해 차량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태풍 등의 영향으로 수해차량이 발생하는 기간에 수해지역 특별 서비스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계절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437개 쉐보레 서비스 네트워크를 이용해 수해 피해 차량 입고시 차차별 미적용 차량을 대상으로 수리비의 50%를 감면해주며, 특별 서비스팀을 편성 수해 피해 지역에 긴급출동 및 무상점검을 실시해 준다.

한편 쉐보레는 10월 한달간 수해차량 보유 고객이 쉐보레 제품을 구입할 경우 추가로 할인해 주는 수해차량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스파크 구입시 20만원, 아베오 20만원, 크루즈 30만원, 트랙스 30만원 등 제품별로 최대 30만원의 특별 할인혜택을 제공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한다. /코산=문정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업무협약 체결

일본목조건축협의회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7일 전북테크노파크 4층 대회의실에서 (사)일본목조건축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난 7월 28일, 8월 19일 등 2회에 걸쳐 진행했던 한일 상담회의 후속 조치다.

특히 일본에 우수기술 및 제품을 수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실제로, 도내 업체들이 10월말 일본에 방문해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상담회 및 업무협약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가 일어나 도내 기업이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제품 수출상담회 등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에 우수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볼 수 있었다. 관심이 높은 만큼 양국 간에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농산어촌 행복대상에 김제시청 이명준계장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주최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인수)는 10일 지사청사에서 2016년 농산어촌 행복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제시청 이명준 계장에게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과 포상금 1백만원을 전달한다.

이명준 계장은 김제시청 건설과에 재직중으로 농촌미를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벽

골제 농업용수로 이설사업, 만경지구 테마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여가생활과 농촌체험관광을 통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자립기반구축에 기여했다.

특히 벽골제 중심부에 위치한 농업용수로 이설예산(국비200억) 확보와 만경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현대자동차, 가을 특별 프로모션

현대자동차가 상용차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현대자동차(주)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용차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모아 동시에 실시하는 가을맞이 고객사랑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홈페이지 고객 추천 유인금 제공 ▲노후 상용차 고객 대상 마일리지 혜택 ▲마일리지와 엑스언트 금리 할인 ▲동행기 대비 부품 및 공임 할인 등 참예된 내수 경기 속에서 상용차 고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혜택들로 구성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현대자동차는 홈페이지(<http://www.hyundai.com/>)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상용차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일 100명을 추첨해 총 9,000여명에 주유 상품권 1만원 권을 증정한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노후 상용차 보유 고객이 마일리지 구매할 경우 기존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자동차의 이벤트의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http://www.hyundai.com/>)와 고객센터(☎ 080-600-6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